

“에어컨 수리 언제 되나요” 폭염에 속타는 기다림

광주·전남 에어컨 사용 급증 속 수리·점검 1주일~한달 대기 ‘고통’ 예약 빗발에 수리기사 밤낮없이 출동...실외기 과열 화재도 잇따라

화순군에 거주하는 나도호(29)씨는 최근 아파트 실외기가 고장나 업체에 수리를 요청했으나, 일주일 넘게 수리 기사가 방문하지 못해 폭염과 ‘찌름’을 벌여야 했다. 폭염에 실외기 과열, 에어컨 고장 등 문제가 잇따르면서 에어컨 수리 요청이 빗발쳐 출장 수리를 해 줄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나 씨는 “수리기사가 ‘예전에는 2인 1조로 다녔는데 인력이 부족해 최근 한 달 간은 휴일 없이 혼자 하루에 세 군데씩을 돌고 있다’고 하더라”며 “폭염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는데, 수리기사 혼자서 커다란 실외기를 혼자 들고 나르는 모습을 보니 불평 한 마디도 꺼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광주에서 에어컨 수리기사로 일하고 있는 박민규(25)씨는 수리·점검 요청에 하루 종일 광주 곳곳을 출장 다니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종일 일하는데도, 예약이 계속 밀려들어 일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씨는 “7월 시작되고 하루에 전화 20통 이상 문의가 들어온다. 요즘 에어컨 업체가 너무 많다보니 그 틈에서 살아남으려면 내 휴게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더 일해야 되더라”며 “고객들이 조금이라도 덜 기다리도록 하루 작업량을 늘려 최근에는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일하고 있다. 지난 4, 5월에는 하루에 2~3건 꼴로 작업했다면 요즘은 6~7건씩 처리한다”고 했다.

전국적으로 때 이른 폭염이 찾아오면서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고, 고장 및 점검 문의도 덩달아 늘어 에어컨 수리·설치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수리 기사들은 쏟아지는 문의와 예약에 연일 밤낮으로 현장을 누비고 있으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제 때 수리를 받지 못한 시민들은 선풍기만으로 폭염을 나느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10일 광주 지역 에어컨 업체 7곳에 문의한 결과 에어컨 수리를 받으려면 최소 1주일에서 한 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9만원 비용이 드는 단순 냉매 충전 작업만 하려고 해도 인력이 없어 하달없이 수리 일정이 비기를 기다려야 하는 판국이다.

수리·설치 가격 또한 덩달아 오르고 있다. 에어컨을 이전 설치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30만~4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최근에는 성수기에다 인력 부족 문제까지 겹쳐 50만~60만원까지도 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요는 몰리는데 인력이 부족하고 인공비·부품비 등 추가비용이 성수기에 반영돼 서비스 비용이 전체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 업체들 설명이다. 더구나 최근 시스템 에어컨, 투인원(2 in 1) 에어컨 등 배관 구조가 복잡하고 시공 난도가 높은 에어컨이 늘어나면서 기사 한 명이 단독 처리하기 어렵고, 그만큼 성수기에 비용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에어컨 수리업자 성재일(32)씨는 “아무리 성수기라고는 하지만, 올해는 유독 무더위가 심해서인지 평소보다 1.5배는 많은 것 같다”며 “일일이 출장을 다니며 길게는 4~6시간씩 걸리는 작업을 하루에 3~4건씩 해도 일이 끝이 안 난다”고 했다.

최근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 수요량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일 한국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8일 전력 수요량이 95.7GW(전국·오후 6시 기준)로 7월 기준 역대 1위였다.

모든 달을 통틀어 보더라도 지난해 8월(97.1GW)에 이어 역대 2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폭염으로 인해 실외기가 과열되면서 화재가 발생하는 등 사고도 잇따라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광주소방 등에 따르면 올해 광주지역 에어컨 실외기로 인한 화재는 6월 1건, 7월 10일까지 2건으로 두 달도 안 돼 3건이 발생했다.

지난 9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15층짜리 빌딩 10층 외벽에 설치된 실외기에서 불이 나 입주자, 방문객 등 400여명이 대피하기도 했다.

한 에어컨 수리업체 관계자는 “멀티탭의 전기 용량이 에어컨의 고품량 전기를 못 이겨 전력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며 “또 에어컨과 실외기에 먼지가 쌓여 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소해 주고, 과열되지 않도록 장시간 사용을 자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곡성서 발일 80대 열사병 숨져...체온 42도

전남 올 첫 온열질환 사망

폭염에 발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열사병으로 숨지면서 전남에서 첫 온열질환 사망자가 나왔다. 10일 곡성경찰 등에 따르면 전남 오후 1시 50분께 곡성군 결면 칠곡리 고사리 밭에서 A(여·82)씨가 쓰러졌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심장지 상태 발견된 A씨의 당시 체온은 42도를 웃돈 것으로 알려졌다. 폭염 경보가 발효중이던 곡성의 이날 낮 최고 기온은 36.2도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이날 오전부터 밭일을 나가 폭염

에 온열 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열 질환은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서 열 때문에 발생하는 급성 질환을 말한다. 질병관리청과 각 지자체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온열 질환 현황을 내고 있지만, A씨는 응급실에 들르지 않고 사후 진단되면서 온열질환자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한 온열질환감시체계 운영 결과(5월 15일~7월 9일)에 따르면 광주·전남 온열질환자는 109명(광주 22명·전남 87명)으로 나타났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폭염 대비 냉조끼 10일 광주시 북구청 산불감시 요원들이 생용동 산불감시초소에서 냉조끼를 착용하고 있다. 이날 광주·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됐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임금 체불·근로기준법 위반 병·의원 줄줄이 적발

여수고용노동청 단속

전남 동부 지역에서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한 병·의원이 줄줄이 고용당국에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지난 5~6월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보성군, 고흥군 등 전남 동부지역 25곳 병·의원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273명의 임금 총 9억 5000만원이 체불된 사실을 확인하고 각 병·의원에 체불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여수지청은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등 노동 관련 법을 위반한 사례도 총 138건 적발했다.

법 위반 사례 중에는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돼야 할 고정수당 등을 누락하고, 휴일·야간·연장근로 수당을 축소해 지급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연차휴가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적

발 대상에 올랐다. 근로계약서를 실제 근로조건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변경 없이 유지한 경우, 휴일 근로에 대해 법정 기준에 못 미치는 보상휴가만 제공한 사례도 포함됐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휴일대체제를 운영하거나, 임금명세서에 필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있었으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병원도 있었다.

이밖에도 퇴직연금을 고의로 적게 적립하거나 퇴직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노사협의회를 아예 설치하지 않거나 분기별 정기회의조차 열지 않는 등 협력증진법 위반사항도 확인됐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연장·야간근로가 빈번하고 여성근로자 비중이 높은 중·소규모 병·의원 사이에서 위법 행위가 빈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전 설명회와 현장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전남경찰, ‘5대 반칙운전’ 집중 단속 나선다

9월부터...교통질서 확립 추진

경찰이 전남 지역 ‘5대 반칙운전’ 등 교통질서 확립 종합 대책을 추진한다.

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새치기 유턴, 꼬리물기, 끼어들기, 비긴급 구급차 법규위반, 버스전용차로 위반 등 ‘5대 반칙운

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이에 더해 안전띠·안전모 착용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찰은 오는 8월 말까지 2개월간 사전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며, 전남 지역 주요교차로 112곳을 중심으로 현수막과 전광판, 전단지 등을 통해 교통질서 준수 캠페인을 벌인다.

9월부터는 교통·지역·기동대 등 가용 인원을 최대한 동원하고 무인단속장비와 암행순찰차 등을 활용해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이달 중에는 사설 구급차를 운영하는 민간이송업체들과 법규준수를 위한 간담회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민의 교통 불편과 불신을 해소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사소한 위반행위들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선진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40

1985
2025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라남도회

전문건설인 대한민국을 세우다!

「대한전문건설협회, 40주년 혁신적인 건설문화를 선도합니다!」